

화순문화관광재단, 여행비용 50% 지원 관광 활성화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 사업

직업재활 제품 구성 웰컴키트 제공 최대 15만원 지원 홈페이지 신청 지역축제 연계 생활인구 증대 기여

화순군이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인 '화사로와, 화순' 2차 사전 신청을 받는다. 여행비용 50%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사로와'는 고향을 다시 찾은 출향인들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선물꾸러미(웰컴키트)와 화순 팜 쿠폰으로 돌려주는 지원 방식의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이다.

선물꾸러미 웰컴키트는 화순을 찾아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담

아 정성껏 준비했다. 화순팜·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지역 제조업체의 제품을 엄선하여 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했고 여행 필수품인 휴대폰 무선 충전기와 '여행 가방(트레블 레디백)'으로 최근 유행의 추세(트렌드)를 반영했다.

1차 사전 신청은 지난달 25일 마감됐으나 이후 1차 신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은 사업 내용을 일부 재정비했다.

당초 5일이었던 사전 신청 기간을 여행 3일 전으로 바꿔 수요일에 신청해도 주말 여행이 가능하도록 신청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상세페이지에 화순 여행에 필요한 주요 여행 정보나 선물꾸러미(웰컴키트) 구성품 내용을 추가, 한 눈에 알기 쉽도록 보완했다.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fct.or.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여행 3일 전 사전 신청을 하고 여행 종료 10일 이내에 정산신청을 해야 한다. (정산신청 시 화순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한 인증사진과 화순 지역 내에서 지출한 영수증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오는 가을 화순의 대표축제인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와 재단에서 주관하는 '운주문화축제'·'적벽문화축제'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순의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구복규 (재)화순군문화

관광재단 이사장은 "화사로 프로젝트(화순의 새로운 루트맵 개발 사업)와 연계해 화순여행을 브랜드화시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수많은 출향인에게 대비와 같은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취약계층 물김치 반찬 지원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

화순군자원봉사센터가 지난 4일과 5일 취약계층 120여 세대에 물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사랑담은 반찬 지원사업'을 펼쳤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화순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희옥)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농협 창고에서 진행했으며 이날 만든 물김치는 반찬 배달 등 유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이선화 가정활력과정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따뜻한 온기를 품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물김치를 만들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 화순군, 30일까지 납부

화순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172건에 1억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24년1월1일~6월30일) 동안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해당 기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 말소 시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담양군, 대표 유료 관광지 추석 당일 무료 개방

죽녹원 등 4개소

담양군이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추석 연휴를 대비해 사전 관광 안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17일 지역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을 비롯해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4개소를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의 환경 정비 및 관광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관내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군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료 개방하는 관광지인 죽녹원은 8가지 주제의 대숲길을 따라 시원한 죽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한옥체험, 죽육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담양군 대표 관광지다.

메타랜드는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에코허브센터,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어린이프로방스 등을 갖춰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소쇄원은 조광조의 제자 처사 양산보가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귀향하여 지은 정원으로 조선시대 원림건축의 백미로 꼽히며 가마골생태공원은 용면 소재 용추산을 중심으로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이 수려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명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추석을 맞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고 고향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군, 추석 명절 합동 청렴 캠페인 전개

음주운전 근절·비위행위 신고 등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5일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순군 공무원노동조합과 합동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9일 밝혔다.

구복규 군수와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은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및 음주운전 근절, 비위행위 신고처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배부하며 청렴한 화순 만들

기에 모든 직원이 함께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들은 물론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홍보하기 위해 청사 내에 안내문을 설치했으며 10일까지 읍·면 순회 청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복규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부심이다"며 "당당하고 청렴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



럼을 실천해 달라"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단속 화순군, 13일까지 전통시장 등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순군은 전남도·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와 단속반을 구성해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판매소와 음식점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과 수산물 226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유통 질서 확립 및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면 된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정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화순군, 응급실 3곳 등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25일 2주간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비상응급의료상황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병원 10개소, 의원 54개소, 보건소 1개소, 약국 23개소를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지정·운영해 환자 진료 공백 방지와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 구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9개소(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진료 일자·시간은 응급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응급환자 정보센터는 국번 없이 119번을 이용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추석 연휴에도 군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약국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